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남북대화를 기본으로 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분야별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6·12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3개 트랙의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두 차례 정상회담에 이어 고위급의 상호 교환 방문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31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및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일본은 G7회의 기간 양 정상 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평화 체제·남치자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

한반도의 봄은 지속되어야 한다

급담이 열린다. 고위급회담은 남북 정상 간의 합의서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협의체이다. 협상 대표단은 철도·도로,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운영, 체육·사회문화 문제 등을 관장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의선·동해선 연결은 민족의 혈맥을 잇고 한반도 신경계공동체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북 제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와 폭의 조절은 불가피하다. 공동연락사무소는 연락·대화·영사의 기능을 가진다. 남북한이 공동의 사무실에서 함께 업무를 본다는 것은 작은 통일을 의미한다. 양 정상 의 첫 작풍이므로 연락사무소의 장소·구성·운영에 관한 좋은 결실이나오기를 기대한다.

판문점선언 1조 4항에, 안으로는 6·15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밖으로는 아시안게임에 공동 진출하여 민족의 단합된 모습을 과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동 행사는 국민과 해외동포, 남북이 함께하는 것이다. 민관이 공동 주최하고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이선권 조평통위원장이 당국의 대표로 참석한다면 행사의 의미는 더욱 빛날 것이다.

8월 아시안게임의 남북 공동 진출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듯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험적 사례는 공동 진출을 밝게 한다. 역사는 과거의 좋은 점은

계승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면서 발전한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한 2030 세대들의 문제 제기를 상기 하면서 절차적 공정성 확보에 배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사안으로서 시급한 과제이다. 연간 3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산의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난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인류 보편적 가치로 접근한다면 정상 국가로서의 북한 인식은 그리 어렵지 않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출발점이다. 군사당국회담·적십자회담·체육회담, 그리고 차기 고위급회담 날짜를 잡아 대화의 추진 동력이 지속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확정적이다. 싱가포르에서는 경호·통신·보도 등 의전 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다.

부부동행·근접경호·회담전 의식·회담장 의전(개별입장·공동입장, 단독·확대 회담 등), 합에서 행태(선언·성명·합의서·공동 코뮤니케 등), 발표 형식, 만찬 의전 등이 논의 대상이다. 북한측의 김창선 부장과 미국측의 헤이건 부실장은 풍부한 경험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큰 문

제 없이 합의에 이를 듯하다. 판문점에서는 의제 문제를 집중 논의하여 왔다. 일괄타결의 합의 방식, 비핵화와 체제 보장 시간표, 단계적 이행 방식에는 접점을 찾은 듯하다.

세분화된 이행 방식에 있어 미국은 단계적 순차성을 주장한다. 북한은 단계적 순차성은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하면서 단계적 동시성을 강조한다. 미국측의 성미 대표와 북한측의 최선희 부상은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고위급회담의 의제로 넘길 듯하다. 뉴욕에서 김영철 통전부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합의된 의제를 중심으로 합의서 문구 조정에 들어간 것 같다. 높은 단계의 비핵화와 낮은 단계의 체제 보장부터 하려는 미국측과 등가성 원칙을 강조하는 북한측과의 입장조율이 핵심이다.

김영철 통전부장이 특사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성공적 정상회담 개최의 청신호이고 만나지 못하면 적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금까지는 긍정적 흐름이다.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하지만 지나친 비관론은 패배주의와 다르지 않다. 한반도의 봄은 모두의 것이기에 모두가 노력해야만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칼럼



장형규
원불교 사무국장

요즘 무언에 일이 있어 자주 가게 된다. 그곳에 머물면서 마음따뜻해지는 경험을 했다.

며칠 전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면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인사를 건네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자, 발음이 부자연스러워 쉽게 외국인임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는 무안으로 시집을 와서 살고 있는 일본인 여성이었다. 더욱 놀란 것은 자신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소개하고 무안교회에 다닌다하였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 원불교 법당에 와도 괜찮나요?”라고 내가 묻자, 그의 대답에 방금 한 나의 말이 우문(愚問)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나의 질문에 “비록 교회를 다니지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교당에 왔습니다. 교무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들이 배우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라고

소통으로 하나가 되자

대답했다.

인사를 나누며 나도 기회가 되면 그 교회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배우러 예배에 참여하겠노라고 약속하고 헤어졌다. 오후가 되자, 화분이 하나 배달돼 왔다. 무안성당의 신부님이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한다며 선물을 보내오신 것이다. 가만 생각해보니, 부활절에 이리저리 쟁긴 것 없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다. 타 종교임에도 서로를 알아 가고 챙겨 주는 마음이 참으로 따뜻하게 다가온 경험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광주전남종교인평화회의에 참석해 다른 종단의 성직자들과 항상 만나면서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작 성직자들이 믿는 타 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곳에서는 무엇을 믿는지, 또 무엇을 실천하는지, 기념일에는 무엇을 하는지 등등의 다양한 이야기거리나 궁금증이 있을 텐데 정작 나의 종교 외에는 알리고 하지 않았다. 아마도 서로 그랬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몰라서 생기는 오해도 많았을 것이다. 그런 오해들이 깊어지게 되면 적대시하는 감정이 서로에게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의 키워드인 ‘소통(疏通)’이라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소통은 국어사전에서 ‘뜻이 통하여 오해가 없게 함’이라고 나와 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환경과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다. 한 지역에 살면서도 서로에 대한 소통이 없으므로 인해 심각한 오해가 생기게 된다.

요즘 우리 한반도를 돌아보자. 분단 70년 넘게 소통 없이 지내오면서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고 상호간에 적대시하며 살아온 한반도 문제를 돌아본다면 그동안 쌓인 오해 또한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 후 5월 26일 전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만나서 대화를 가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친구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이어서 더욱 뜻 깊었다. 화라인통화로도 가능하지만 가장 빠른 소통의 방법은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것이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의 진심을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말로 전하는 또 다른 오해를 방지한다.

또 하나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아시

아종교인평화회의(ACRP)에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종교인 교류 행사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화해와 평화, 그리고 남북한 교류를 위해 종교인들이 책임을 다하고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 종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교류를 해나간다면 남북한 공동의 공감대를 이루지 않을까 싶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통일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에도 휴대 폰이 400만 대가 보급됐다고 한다. 또한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우리의 한류 문화가 저변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이다.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북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남북한이 서로 화해를 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 함께 대화하고, 알아가고, 서로의 소통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였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6월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갈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다. 보수, 진보를 떠나 우리 모두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대입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社說

또 터진 기아차 채용 비리 구조적 사슬 끊어야

채용을 미끼로 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사기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구조적인 채용 비리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채용 사기 피해자는 100여 명에 피해액은 40억 원대에 달한다.

채용 사기 구조를 보면 기아차 광주공장 전직 노조 간부와 사내 하청업체 직원 이 브로커나 알선책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는 식이다. 전직 노조 부지회장은 전·현직 기아차 직원 2명을 통해 취업 희망자를 소개받은 뒤 29명으로부터 19억 원을 챙겼다. 사내 하청업체 직원은 전직 노조 대의원을 브로커로 활용해 56명에게서 18억 원을 받았다.

채용 사기 전 과정에 노조 간부가 개입돼 있다는 점에서 기아차 광주공장의 채용 사기가 구조적인 비리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구나 금품을 건넨 취업 희망자 가운데 실제로 채용된 근로자가 1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을 볼 때 채용 사기가 단

순히 개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기아차 광주공장 내 노조나 인사 담당자를 비롯한 고위직과 연결된 구조적인 비리 사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기아차 채용 사기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취업 희망을 이용해 거액을 뜯어냈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평생 막노동으로 모은 돈을 날린 60대 어머니를 비롯해 피해자 대다수가 대출을 받거나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돈을 모은 사회적 약자들 아닌가.

기아차 광주공장의 채용 사기는 이번만이 아니다. 2004년에도 노조 간부 등 130여 명이 연루된 채용 비리가 적발된 등 있음을 만하면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가 끝나야 알겠지만 이번 채용 사기 규모도 2004년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채용 비리의 구조적 사슬을 끊어 내야 할 것이다. 기아차도 사내 시스템 점검으로 채용 비리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강진의료원 간호사 ‘갑질’ 진상 조사 철저히

공공의료기관인 강진의료원에서도 간부 간호사가 ‘태움’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남도가 진상 조사를 나섰다. 의료원의 한 직원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간부 간호사의 갑질로 그만둔 간호사가 10명이 넘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다.

‘태움’이란 말은 ‘영혼이 재가될 때까지 활활 태운다’는 뜻으로 후배들에 대한 괴롭힘을 일컫는 은어다.

청원서에는 간부 간호사의 폭언과 인격 모독, 업무 차별, 부당한 인사 발령 등의 갑질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해당 선배 간호사는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의 내용 중 90%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제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이라 일부 말이 의도와 다르게 기본 나쁘게 들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갑질과 태움 여부는 정확한 진상 조사가 있어야 밝혀질 것이지만 교육이나 업무 중립이라

도 후배들에게 인격 모독이나 인권 침해로 기eme 상처를 남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군대에서도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격장에서만큼은 군기가 엄한 것처럼,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처럼 위독한 환자가 있는 공간에서의 간호사 행위 하나하나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간호사 교육은 엄격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태움 문화의 소지가 다분한 것도 부인하긴 어렵다.

어찌 됐든 청원 글이 올라온 뒤 의료원의 전·현직 간호사 9명은 갑질 간호사 퇴진을 요구하는 사투서를 노조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노조는 가해자 징계 등을 요구하고 있고 병원 측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속한 진상 파악이다. 병원측은 하루빨리 조사위원회를 열어 철저한 조사로 만약 청원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이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태우호는 지난달 28일 가진 은두라스와의 첫 평가전에서 2-0으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오늘은 전주에서 보스니아를 상대로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른다. 팀의 중심 기성용이 출전해 공격과 수비의 조직력을 실험하고 최종 엔트리를 결정하는 경기다. 대표팀은 경기 후 출정식도 갖는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F조에 속한 나라의 피파 랭킹은 독일이 1위, 멕시코 15위, 스웨 23위, 한국 61위다. 이들 나라와 역대 한국 A매치 전적은 스웨덴전 2무2패, 멕시코전 4승2무6패, 독일전 1승2패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야후스스포츠의 한국 16강 진출 전망은 29.4%로 F조에서 가장 낮다. 독일이 93.8%고 멕시코와 스웨덴은 각각 46.5%와 42.6%로 분석됐다. 한국이 F조 1위에 오를 가능성은 5.9%, 월드컵에서 우승할 가능성은 0.2%다.

16강 진출에 대한 축구인들의 예상은 조금 높다. 애국주의 경계가 포함됐지만 그래도 마냥 낙관적이지는 않다. 허정

무 점 감독은 “스포츠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며 50%로 예측했다. 박지성 SBS 해설위원은 “지금 상태로 봤을때”라는 전제로 50% 이하, ‘인간 문어’ 이영표 KBS 해설위원은 25%로 내다봤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첫 경기의 중요성이다. 스웨덴을 이기면 16강 진출 가능성은 50%를 넘기게 되고 지면 0%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들도 그리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7%의 응답자만이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았다. 역대 월드컵 사전 조사 중에서 이번 대회 기대치가 가장 낮게 나왔다.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와 선수들의 유럽리그 진출로 이미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에서 우리 팀이 힘겹게 본선에 진출한 뒤 여러 차례 평가전에서 졸전을 벌인 것을 봐 온 탓일 것이다. 국민들의 낮은 기대치가 오히려 선수들의 승부욕을 부추겨 에너지가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유재관 편집1부장. 부국장 jkyou@

기고



정명숙
화이트큐브갤러리 디렉터&미술평론가

요즘엔 미술관을 찾는 이들이 늘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술관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찾는 이들을 보면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나는 우리 갤러리를 찾는 관람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첫 번째 유형은 갤러리나 미술관 문턱이 너무 높다고 스스로 생각해 출입을 포기하고 “내가 가는 장소가 아니야” 라 단정하며,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를 시도하지 않았던 경우이다.

그런데 갤러리에 일단 들어와 그림을 감상하고 디렉터에게 설명을 듣고 나니, 작가가 그림을 통해 무얼 말하려는 지금은 알 것 같아 좋았다며 그림 감상이 특별

갤러리 관람객의 세 가지 유형

한 사람만 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됐다고 이야기한다.

이후 전사가 있을 때마다 방문해 감상의 즐거움에 빠진 관람자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림에 대한 질문도 하고, 느낀 점을 말하기도 하고, 또 관람자 스스로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면서 자주 그림 감상의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면 보람을 느낀다. 관람자들이 저마다 문화인의 소양을 점점 쌓아가고 있음을 바라볼 때, 갤러리 디렉터로서 관람자를 위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나에게 ‘참 잘했어’요’ 도장을 내 마음 속에 꼭 눌러준다.

두 번째 유형은 미술품 감상하는 일을 취미로 하는 관람자이다. 이런 관람자는 그림이 좋아서 항상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를 수시로 출입한다. 그리고 미술이나 음악 강좌가 있으면 시간이 되는 대로 참여하는 호사가이다. 예술품을 자주 접하다 보니 그림을 보는 안목도 소유하고 있으며, 작가에 대한 호불호와 이론도 상당한 수준이다. 또한 좋아하는 작가를 리스트를 스스로 만들어 감상하는 기회를 누린다. 정치가, 사업가, 고위 관직 등

도드라진 직업 군이 아닌 보통의 직업을 가지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뇌를 쉼하게 하는 지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다.

이런 관람자가 갤러리에 오면 기분이 좋고 답사로 이어져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르는 소통의 마법에 빠져 든다. 그리고 그림이 정말 본인 마음에 감흥을 줄 때는 가끔 구매도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는 더불어 행복감을 느낀다.

세 번째는 그림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컬렉터(Art collector)이고, 예술 전반에 대한 서적을 탐독하고 작품을 수시로 관람하며, 그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전공자를 능가하는 실력을 소유하고 있는 관람객이다. 이 유형은 굉장히 긴장감을 주는 관람자이며 디렉터와 힘겨루기를 하는 아름다운 고통을 맛보게 한다. 물론 이런 분들로 인해서 실력을 갖추는 데 더욱더 정진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많다. 그리고 컬렉터 관람자는 좋은 그림(예술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그림)을 반드시 구매하기 때문에 작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가교 역할을 하는 갤러리 운영자로서 보람 또

한 느낀다.

예술품은 의식주처럼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컬렉터가 존재해야만 작가와 디렉터가 할 일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컬렉터는 두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그림을 구매해 선물하거나 소장하는 유형이고, 또 하나는 예술성이 있는 작품을 구매해 경매 시장에 내놓아 차액을 취하는 재테크 유형이다. 이러한 컬렉터 관람자는 문화 예술이 정체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나에게는 세 가지 형태의 관람객 모두 소중하다. 첫 번째 유형은 조금씩 예술 문화에 눈을 떠가는, 아끼 걸음마 같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문화인이어서 좋고, 두 번째는 예술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문화가 최고의 행복이듯 쌍방에게 행복한 코드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다. 또 세 번째 유형은 예술 문화를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 작가와 디렉터에게 내공을 쌓게 해주니 좋다. 어떠한 관람객이든 갤러리를 찾아주는 이는 모두 문화인이며 사랑과 소통의 대상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 AX 227-9500) 다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 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